

2024년 3월 둘째 주 가정예배 (March Week 2)

#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

God Our Strength and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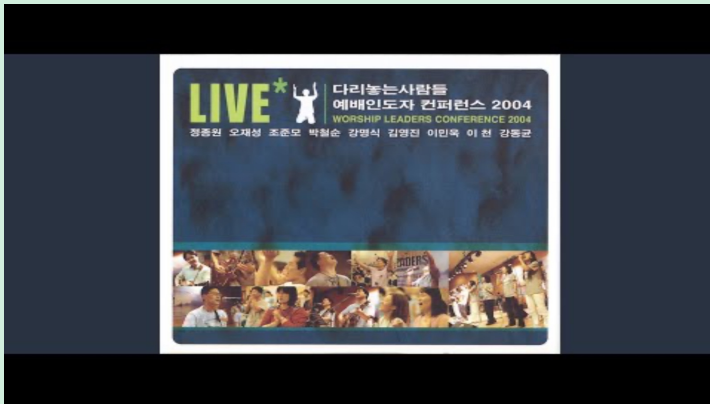
(시편 46편 1~3절 / Psalm 46:1-3)



# 찬양 | Praise Time 함께 부르는 찬양

이 주의 추천 찬양

주품에 (Anointing), Still (Hillsong Worship), (유치부)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품에



Still



(유치부) 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 |**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 주세요.

God, we want to worship with joy. Help us to enjoy Your grace abundantly as we worship with all our hearts and minds.

## 말씀 | 시편 46:1~3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3.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 말씀 | Psalm 46:1~3 (ESV)

1.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2.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s way, though the mountains be moved into the heart of the sea,
  3. though its waters roar and foam, though the mountains tremble at its swelling.
- Selah

## 말씀 | 본문이해 (Understanding the Scripture)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백성의 삶에도 땅이 뒤집히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닷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심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그분 백성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The Psalmist confesses that God is the safest refuge. There are severe trials in the lives of God's people, such as the earth turning over, storms raging, and the waters rushing in, but the reason we can be fearless in those situations is because the living God gives His people strength and support.

**나눔 |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어요.**

1.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나요?(1절)

1. What does the psalmist confess God to be like? (v.1)

**나눔 |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어요.**

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시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The Psalmist confesses God as a refuge, strength, and help. Share how you would describe God.



**감사하기** |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소리 내어 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리세요.

Say out loud the character of God that you have come to know through your family worship today, and give thanks that He is our God.

## 기도 | 함께 읽고 기도해요.

하나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세요.

God, thank you for helping me to know and believe in You,  
our God of strength and help. Help me to rely on You as a  
refuge in times of trouble and difficulty, and to find peace  
and rest under Your wings, not worry and fear.

## |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우리 가족은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 가정예배 출석체크

‘출석체크’ 바로가기

